



“출판 인적자원 양성과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1주년 맞은 출판전문 교육기관 sbi, 종합출판학교 지향

sbi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풍경. 정에 출판인 양성을 목표로 한 이곳의 수업분위기는 무척이나 진지하다.



지난 2005년 5월 2일 개원한 ‘서울 북인스티튜트’(원장 박은주 · Seoul Book Institute)가 지난 5월로 1주년을 맞았다. 출판전문 교육기관인 서울 북인스티튜트(이하 sbi)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사)한국출판인회의가 출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편집자 입문과정, 북디자인스쿨, 출판광고론, 출판경영자정책아카데미, 분야별 교정교열과정 등 한국출판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출판 전문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개원하게 되었다.

sbi는 개원 이전부터 출판전문가가 중심이 된 설립준비위원회와 교재개발위원회, 행정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전 설립 준비를 해왔다. 18인의 출판인들이 출연하여 땅과 건물을 마련하였고, 출판계의 인력교육을 지원하는 문화관광부에서 교재개발과 설비 지원을 위해 총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70개 출판사가 기금을 모아 설립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박은주 원장은 “설립 후 지난 1년 동안 고급 출판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 변화하는 국제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출판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출판문화 및 산업 발달에 이바지해왔다” 고 자부했다.

70개 출판사 설립 토대 ... 국내 독보적 실무 위주 강좌

“합리적인 운영과 교육의 전문화를 통해 고급 출판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수요자를 출판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출판계 우수인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출판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교육프로그램개발위원회를 열어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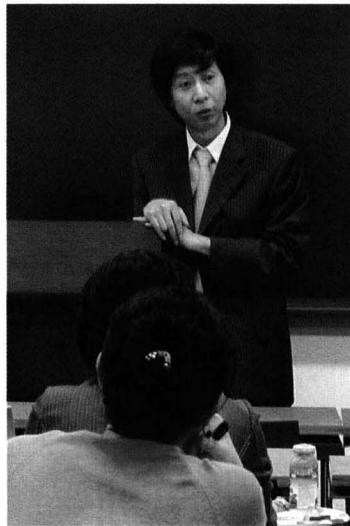
하고 있죠.”

(사)한국출판인회의 교육행정팀의 김지양 씨는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발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수시로 수정 보완하면서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이론과 현장의 창조적 접목을 통해 사례 연구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의 교육, 출판인으로서의 건전한 직업정신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그 목표로 삼고 실무 위주의 강좌를 운영해오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년이 기본적인 강좌들을 통해 sbi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올 하반기엔 교정 교열 검증 과정과 출판 창업, 경영자를 위한 강좌 등을 새로 개설할 예정이다. sbi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재개발위원회에서 실무 위주로 펴낸 것이라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수강생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 조만간 일반 독자들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할 생각”이라고 한다.

4층 건물에 도서관·강의실·장비·세미나실 등 완비

서교동에 자리한 sbi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은 8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며, 1층은 한국출판인회의



sbi 1주년 기념 특강을 가진 박상순 출판디자인 과정 책임교수.

사무실, 2층은 강의실과 자료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도서관에는 국내·외 출판관련 도서 1,200여 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책 이외에도 도서목록이나 홍보자료 등 사료도 계속 수집해나가고 있

다. 3층에는 출판 디자인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최신형 MAC PC가 구비되어 있고, 4층은 세미나실로 출판관련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sbi의 정규강좌는 편집자 입문과정, 교정 교열과정, 출판 마케팅 과정, 출판 편집장 과정, 출판 제작과정, 출판 디자인과정, 편집 디자인 실무를 위한 DTP 과정, 출판 창업자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비정규 강좌로 출판경영 교실 등 각 현직 전문가를 초빙해 특별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환급과정을 통해 교육비의 일정부분을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강생들 ‘업무에 유용한 피드백’...교재도 인기

sbi는 2005년 5월 3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2006년 5월까지 총 5기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수료 인원이 800여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출판인들과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에 힘입어 출판전문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박은주 원장은 “수강생들의 열의가 뜨겁고 강좌에 대한 반응도 매우 좋다, 강사로 참여하는 출판인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지양 씨는 “매 기수가 끝나면 설문 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 다음 강의에 반영한다”며 “수강생들끼리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사와 수강생들이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실제로 강의를 수료한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제4기 교정교열 과정 수료생인 아가페출판사 편집부 김선경 씨는 “편집자의 길에 들어선지 1년이 지나자 교정교열의 원칙과 방법에 한



계를 느껴 고민하던 중 sbi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회사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강하게 되었다”며 “철저하게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무 위주로 진행되어 전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다음 날 업무에 활용될 정도로 피드백이 빨랐으며, 강의 교재도 지금까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수강 소감을 전했다.

sbi는 앞으로 지속적인 커리큘럼과 출판 산업의 표

준화를 꾀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고 실무형 출판전문가를 양성, 출판 정보 인프라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출판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영국의 <런던인스티튜트>나 이탈리아의 <파프리카>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취재_ 김지희 기자 | 사진_sbi 제공

INTERVIEW

sbi 박은주 원장

“sbi라는 공공의 장 통해 출판인들 공존·공영 기대”

지난 1년 간 sbi를 이끌어온 박은주 원장(김영사 대표)은 “그간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성과들이 모여서 오늘의 sbi를 있게 했다”며 “뿌듯하고 기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sbi를 통해 출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그 역동적인 기운에 전염된다고 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친다기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의욕과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보면서 출판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 원장은 sbi가 자체 건물을 갖게 된 것은 출판 인적자원 양성과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기틀을 확립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sbi 건물을 통해 사람들이 걸 집되면서 그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등 sbi의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독립체의 성격이 강했던 각 출판사들이 sbi의 사업들을 통해 서로 만나게 되면서 내부 결집력도 강화되고 정보와 인적 자원을 공유하게 되는 측면이 커졌다고 했다. 출판사들의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라 대표들이 강사로 열심히 활동할 뿐 아니라 재직중인 직원들도 재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sbi는 체계적인 출판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 등 개별 출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해준다는 면에서 많은 출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고 어려운 와중에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열심히 도와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죠.”

sbi는 올 하반기의 중점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상을 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을 접촉해 협의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박 원장은 “장애인 교육은 sbi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추진중이다.



출판인들이 경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sbi는 현재 강의용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건이 된대로 건물을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충분한 공간 확보와 지속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종합출판학교로 성장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박 원장은 “시대가 변해도 ‘책은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출판인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연마를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출판계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출판사 대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직원 교육과 복지에 힘쓰고 있고 우수한 인력들이 출판계에서 종사하고 있다”며 출판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취재_ 김지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